

政治·行政體制와 國民과의 連結帶로서의 共同體的 代案에 關한 研究

高 昌 璵

目 次

- | | |
|----------------------|-----------------------|
| I. 문제의 제기 | 3. 작은 나라의 공동체적 대안의 의미 |
| II. 역사속의 공동체와 현대적과제 | 4. 공동체적 대안의 구조모색 |
| 1. 한국공동체의 뿌리 | III. 맺는말 |
| 2. 역사속의 공동체적 대안들의 업적 | |

I . 문제의 제기

한국 행정학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는 국민과 행정의 조화로운 연결대를 마련해 줄 이론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우리의 역사속에서 국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공동체적 대안의 매듭은 무엇인가를 더듬어 보는 성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적 대안의 내용을 경험적 자료에 의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대안의 역사적 맥락과 이러한 대안의 창조적 계승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 보는 탐색적인 고찰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개념적·이론적 문제의 귀결점은 공동체 의식의 재건으로 모두어진다. 국민은 행정을 두려워하여 불신하고 반대로 행정은 국민을 무시하여 불신할 때 생기는 국민과 행정의 괴리현상 또는 단절현상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공동체 정신속에 배여 있기 때문이다.¹⁾ 국민과 행정의 단절현상은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과장은 되지 않는다. 특히 양자간의 단절이 클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내의 불평등이 많아지고 행정의 능력은 축소되고 국민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1) George Frederickson, "The Recovery of Civism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ume 39(November/December, 1982), No.6, pp.501-507.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그 결과 성장이라는 밝은 양지를 확대시킨 반면,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여러가지 사회·정치·행정의 문제도 많았다. 특히 심각한 행정의 문제로는 국민과 행정과의 거리감이 커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국민이 행정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간의 거리감이 커져 단절현상이 생길때 양자간의 협조나 협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면 한 정권을 부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체감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리감은 상호작용을 하거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들 사이에 느끼는 친소감정을 말하고²⁾, 단절현상은 거리감의 심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단절현상은 국민과 행정의 상호작용속에서 한 단위가 다른 단위에 대해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빚은 결과개념이다. 이러한 단절상황의 치유에 대한 공동체적 대안의 모색은 세계의 관점으로 논의를 구체화시켜 볼 수 있다. 첫째, 우리의 역사적 전통속에서 공동체적 바탕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정리하는 관점에서 공동체의식의 형성, 발전과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다. 둘째,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속에서 공동체 대안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국민과 행정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적 전통의 내재적 기반위에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현대사회의 제반문제들의 해결을 모색하는 근원으로서의 공동체적 대안의 구조를 모색해 보는 관점에서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포용해야할 내용(목표 및 과정)의 틀을 제시해 보려 한다. 공동체의식의 제전이 되지 않고서는 행정과 국민과의 전전한 대화와 견제가 불가능할뿐더러 새로운 목표의 추구도 어렵다는 생각에서이다.

II. 역사속의 공동체와 현대적 과제

1. 한국공동체의 뿌리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고조선에 관한 문헌에서 볼 수 있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은 한민족(韓民族)의 건국이념으로서 뜨거운 인간애와 인류애를 담은 인본 내지 민본사상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한민족(韓民族)의 뿌리이다. 이 뿌리는 혈연중심의 씨족공동체사회를 지나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舞天), 삼한의 시월제(十月祭) 및 기풍제(祈豐祭)와 같은 무격신앙(巫覡信仰)의 종교적 제의를 거치면서 온나라 사람들이 상하 구별없이 제의를 즐기면서 하나의 일체감을 이루는 씨족 공동체의 전통의 줄기로 성장한

2)李宗范, "國民과 行政間의 거리감," 金雲泰外 共著, 韓國政治行政의 體系, 서울: 博英社(1982), pp. 223-241

다. 홍익인간(弘益人間)으로 출발된 공동체적 전통은 무속신앙을 통한 각종 종교적 제의와 결부되고 전제주의적이고 지배자중심의 국가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한 이민족의 침략등으로 개체중심적이기 보다는 집단중심적이었고 민중중심적이기 보다는 지배층 중심적이었다.³⁾ 또 다른 줄기는 민중속의 공동체 의식으로 고대로 부터 내려온 「한국사회에서 독특하게 존재했던 공동노동을 위한 성인 남자들의 작업공동체」인 두레⁴⁾를 비롯하여 고대 삼국시대의 지연적,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나(那)와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까지 사원의 경영공동체로서의 보(寶) [(僧加-三摩(신라)-三麥(신라)-福田(신라·고려)-衆(이조이후)], 그리고 이조시대의 보편적인 인적 결합체로서의 계(契=會=結聚=聚會=結禾契) 등에서 구체적 형태로 성숙한다.⁵⁾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피지배자 중심의(우리) 의식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역사속의 공동체적 대안들의 업적

이러한 공동체적인 의식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 대안의 업적은 제층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배계층의 업적으로는 첫째, 삼국시대의 경우 씨족 내지 부족장 선거가 귀족연합체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합좌(合坐)제도에 의한 정치를 제도화했다는 바 신라의 화백(和百), 고구려의 제가평의(諸加評議), 백제의 국상선거(國相選舉) 등의 주목할만한 민주제도를 들 수 있다. 특히 화백제도의 의결은 만장일치제를 택하였는데 이는 국정중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국민의 의사를 신중하게 포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⁶⁾ 이는 왕족과 귀족중심의 귀족사회에서 관인정치(寬仁政治)란 목표를 실현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지배층의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킨 지배층의 중요한 업적이라 생각된다. 둘째, 이조시대의 경우 왕조창업시의 무(武) 중심적 통치방식을 문(文)으로 포용하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세종시의 한글창제, 서경권(署經權: 일종의 탄핵권)의 시도, 의정부 중심의 정치운영제도, 세조시의 경국대전편찬, 횡간(橫看: 국가예산제도), 상평창(常平倉: 빈민구휼제도) 등 조선왕조의 문물제도의 완비를 통하여 무(武)를 문(文)으로 통합하는 원칙을 세웠다. 인정(仁政)이란 소중한 목표와 문치주의의 원칙은 실제적인 정치운영에 그대로 투영되진 못했다. 이러한 당시의 이상이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데는 그 당시의 사회적배경 때문인 듯 하다. 체제자체가 갖는 성격이 양반관료지배의 중앙집권적인 국가인데가 특정한 소수집단이 조정내의 정치권력을 장

3) 韓貞一, 韓國政治發展論, 서울: 전예원(1982), pp. 97-133.

4) 愼謙履, "두레 共同體와 農樂의 社會史" 한국사학회연구 2, 서울: 한길사(1984), pp. 11-53

5) 金三守, "韓國社會經濟史— 諸共同體 및 그와 關聯된 諸問題一," 韓國文化史大系 3: 政治·經濟史(中), 서울: 高대民族文化研究所(1982), pp. 537-759.

6) 申福龍, 韓國政治史論, 서울: 박영사, pp. 245-267

기간 독점했을 뿐더러 반인간적 요소들(국민권이나 여성권)로 인하여 지배계층 사이에 불신감이 조장케 됐고, 끝내는 연산조이후의 사회로 치달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켰지만⁷⁾ 양반관료층에 의한 인정(仁政=통치자가 백성에 대한 무한한 배려를 '근간으로 한)을 근본으로 한 민본(民本)=애민(愛民)과 무(武)를 다스리는 문치주의를 모색했던 것은 상층부의 중요한 정치적·행정적 업적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정책목표가 인도적 고려를 포함하는 인정(仁政)의 구현이었고, 정책의 시행방법이 무(武)가 아니라 문(文)인데 관료의 충원을 공개경쟁시험인 과거제도를 통하여 영의정까지도 등용해 올린 공무원제도가 그것이다.

공동체적 대안에 대한 중간층의 업적은 실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학자들은 관직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과거시험을 거부한 재야의 학자들로서 당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원칙인 민본이데올로기가 허구화되고, 관과 민이 괴리되는 단절상황을 치유하지 않고는 조선왕조 사회자체가 더 존속할 수 없게 된다는 인식위에서, 민본이데올로기에 정치, 사회, 경제적인 실체를 담아야 할 대안을 구상한 것이 실학의 정치사상과 경제사상의 핵심이었다. 첫째, 정치, 사회, 경제적인 실체를 담아야 할 주체를 민본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과도적이긴 하지만 민을 역사의 주체로 까지 파악하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시도됐고, 민을 역사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까지 보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개혁의 구상은 이상주의적이면서 근대지향적인 면을 내포하게 됐다. 정 약용의 경우 정치변동의 구조에서 민을 주체로 파악하는 노력이 드러나는 데, 그의 「탕론」(湯論)이나 「원목」(原牧), 「원정」(原政) 등에서는 하이상적(下而上的)인 정치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한 결과 통치권의 기본적인 발생근원은 민에게 있으므로 민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까지 제시하는 바 이 속에 봉건사회와 근세사회를 연결시키는 사상의 고리가 있다.

하층계급인 서민의 공동체적 대안에 대한 업적은 두레와 민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⁸⁾ 두레는 삼한·삼국시대에 발생하여 1945년까지 세단계로 나누어 발전되는 데 제 1단계는 삼국시대까지의 시기로서 마을에 사회신분 계급의 분화가 없는 사회적 조건에서 마을의 모든 성년들이 참가하는 두레로 길쌈두레와 같은 작업 공동체였고, 개별가족단위의 사회생활과 농업경영이 발전하고 공동노동의 사회적 필요성이 감소해 감에 따라 점차 소멸되었다. 제 2단계의 두레가 성행한 것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온 답작시대의 일이며, 이때의 두레는 마을내

7) 李瑄根, 大韓國史 4 : 朝鮮王朝의 創業, 서울: 신태양사(1973), pp.12-98

鄭杜熙, 朝鮮初期政治支配層研究, 서울: 일조각(1983) pp.262-272

李載燮, 柳永烈 共著 韓國史大系: 朝鮮前期, 서울: 삼진사, (1976), pp.23-44

8) 金漢植, 實學의 政治思想, 서울: 일지사(1979), pp.331-352

朴忠錫, "實學思想에서의 民本主義"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서울: 우석출판사(1982), pp.339-349.

姜在彦, 韓國近代史研究, 서울: 한밭출판사(1983), pp.17-57.

李佑成, 韓國의 歷史像,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pp.9-25

의 귀족과 지주는 참가하지 않고 평민과 생산농민만이 참가하는 최하층 농민들의 작업공동체였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사건과 관련되었을때 단편적이고 예외적인 기록을 빼놓고는 거의 기록에 남지 못했고, 지배계층들은 민배(民輩)라는 경멸적인 용어로 지칭하고 있을 뿐더러 우호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인 인식을 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두레는 조선말기에 전국 농촌사회의 가장 중요한 작업공동체로 성장했고, 이러한 두레의 실체와 실행은 다산 정약용의 여전제의 토지개혁론에서 공동노동과 공동경작에 의거한 협동농업생산체제의 구상의 기초가 됐고 이조말기에 이르러 두레는 농촌사회의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작업공동체로서 행정단위로서의 이(里)보다 그 조직의 수나 그 조직의 역량이 현저하였다.⁹⁾

두레의 조직은 반드시 '마을'(자연촌락·자연부락) 단위로써 행정단위로서의 동리(洞里)와는 다르며 평균 20-30명으로 조직되고 16~17세 이상부터 55~56세의 성인남자로 구성된 민중의 작업공동체였다. 첫째, 전체 마을사람들이 직접참여를 근간으로 한 공동체로서 공동노동, 공동휴식, 공동식사, 공동오락을 통하여 일과 놀이를 통한 두레꾼들의 연대관념과 결속을 다지고 민중의 삶을 활성화하고 협동을 통한 공동체적 관계의 성숙과 우리의식이란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농민문화의 주축이 되었다. 둘째, 두레의 간부의 선거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거날은 그 마을의 공휴일로 정하고, 각 농가에서는 공동으로 추렴하여 술자리를 베풀다. 이 술자리를 「나달이」, 또는 「장기씨네」라고 부르고, 마을의 성년남자가 모두 모인 이 나달이 좌석에서 의사가 진행되고 의장은 그 마을의 최고 고령자가 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이 통례이며 큰 실책이 없는 한 유임되었고, 두레의 역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존경과 위신을 의미하는 영광이었다. 이 「나달이」에서 두레성원전체가 참가하여 구두의결에 의하여 영좌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조직내의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관철되었다는 것이다. 영좌를 포함하는 모든 역원들은 다른 두레꾼들과 마찬가지로 역할분담의 원리에 따라 공동노동에 참가하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했으며, 영좌까지도 독재와 독단은 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두레를 지극히 민주주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농민 민주주의가 실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결맞게 두레에서의 규율과 규범은 엄격하였으며 두레꾼들은 두레의 규율과 규범을 잘 준수하였는데, 영좌의 명령과 지시는 존중되어 잘 수행되었으며, 두레꾼들은 규율에 따라 질서있게 작업활동을 하였다.

두레에 있는 독특한 의식과 행사로서 '호미모듬'과 '호미씻이'가 있었는데 이는 두레가 단순한 결사체가 아니라 공고한 작업공동체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줄 뿐더러 호미씻이는 성과를 결산하는 축제로서 민주적으로 성원들의 공동체의식과 단결을 강화시켜 주었다. 호미씻이는 ① 마을의 주요사항을 처리하는 마을회의 ② 농악과 놀이 ③ 향연으로 구성되는 바, 촌락자치의 수련장이며 공동향연의 축제마당이었다. 그리고 호미씻이가 끝나면 일종의 회계가 행해졌는데 두

9) 懷麓堂, 앞의 논문

레의 수입은 두레성원사이에 분배하지 않고 공동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사용되는 바, 나머지는 농악기의 구입과 수선 등 두레의 공동경비에 충당하고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마을의 동계(洞契)나 호포계(戶布契)에 편입하여 마을의 공동비용에 사용하였다. 세째, 마을의 공동적인 이익을 함께하기 위해 두레가 작업을 하는 농지는 그 마을의 전체농지를 자기의 1개의 경영지로 간주했는 바, 여기에서 공동소유란 공동체적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마을의 공유지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관리할 뿐더러, 과부·병약자등 노동력 결핍자의 농지에 대해서 두레꾼의 공동노동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일반 농민의 경작지는 상호 협조해서 노동을 해주었고, 지주의 경작지는 제공되는 공동노동의 댓가만큼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얻어내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두레가 형평성을 추구한 공동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두레의 공동부조의 기능은 농업경영에 관한 한 과부와 병약자의 농민가족에 대하여, 마을성원 전체에 대해서도 상호부조는 물론이요, 그들의 유고시에 대비한 공동체적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실천했다. 네째, 두레는 위와같은 직접참여와 민주성과 형평성의 원리를 마을공동체에 내재화 시키는데 성공했을 뿐더러 개인간의 연결, 마을간의 연결에도 의미있는 노력이 보인다. 두레는 개인간의 관계에서 성인남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부과했지만 나름대로의 「주먹다듬이」라는 일종의 성년식과 「바굴이」라는 입회식 제도를 갖고 있었으며, 가장 우수한 두레꾼을 두레장원으로 뽑는 포상 관습과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 두문(杜門), 절교(絶交), 태형(笞刑), 추방(追放)하는 제재도 가했고¹⁰⁾, 일하는 것=노래하는 것이라는 생활철학을 제공했고, 마을에 요구되는 인간상을 정립해 나갔다.¹¹⁾ 두레는 마을 간의 연결에서 하부조직으로 여자두레(예: 두레삼, 두레베), 아이두레, 노인두레를 두고 지도하여 나름대로의 맞는 일을 찾아 분업적으로 작업하여 노동능률과 생산성을 높이게 했다. 아울러, 두레는 마을에 자치적으로 공동규범을 수립하고 농악에 의한 공동오락, 공동노동을 공급하여 농민사회를 통합하는 구심점으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체의식을 일깨우고 농민문화를 창조하고 다듬는 모태였다. 다른 마을과는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두레의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농민의 자부심과 단결을 상징하는 두레기가 있었는데, 두레의 위신에 따라 농기도 위신의 차이가 있었다. 여러 마을의 농기들이 마주칠때 권위있는 농기를 지닌 두레는 그보다 못한 두레의 농기로부터 경의를 표하는 예를 받게 돼있으며, 만일 이 경의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10) 李圭泰, 서민의 意識構造, 서울: 신원문화사(1984), pp.103-155

11) 慎籟廈,

이 부분은 신용대학교수의 논문과 이 규태선생의 저서에 주로 의존했는데, 입장이 다소 다른 듯 하다. 신 교수는 두레가 농촌사회에 10가지 기능 즉 ① 협동생활훈련 ② 노동패락화 ③ 노동능률제고 ④ 공동부조 ⑤ 공동오락 ⑥ 생활활성화 ⑦ 공동규범 ⑧ 사회통합 ⑨ 공동체의식 함양 ⑩ 농민문화창조의 기능들을 수행한 민주적인 공동체의 모형이었다고 하고, 이규태씨는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 주먹다듬이 같은 입회식을 강제적인 고문으로 파악하고 있고, 호미씻이는 낭비를 조정하는 때 해도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모욕과 멸시로 간주되어 두레들 사이에서 두레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졌다.¹²⁾ 이는 두레공동체끼리 선의의 경쟁논리가 존속했으며, 아울러 마을끼리의 연대의식을 키우고 마을끼리의 연결을 가능케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피지배층의 또 하나의 업적은 민란에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에 있어서 지배계층에 대한 민중의 항거는 끊임없이 있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811년의 홍경래 난과 1862년의 임술민란 그리고 1894년의 갑오농민봉기라고 할 수 있다. 1862년(철종시내)에 37회, 1864년(고종시내) 이후 1894년 까지 47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민란의 주요한 원인이 정치행정체계의 문란과 무기력에 있었으며 요구하는 조건도 지방행정관리들의 가렴주구의 시정, 세정의 시정 정도로서 지역적 문제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민란은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정치행정체계에 대한 굴종이 아니라 적극적 거부와 시정의 촉구를 내용으로 한 정치행정체계의 부분적인 개혁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민중의 주요한 업적으로 볼 수 있다.¹³⁾

이상과 같이 통치체제와 민과의 평화로운 연결을 모색했던 공동체적 대안은 어느 계층에서나 제시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러한 공동체적 대안은 한 말의 급박한 위기상황 속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형태로 나타날 뿐더러 세층적인 문제를 넘어 전체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모두어 진다.

척화파의 최 익현은 위정척사사상을 체계화한 이론가이며 실천가로서 1876년 지부척화소(持釜斥和疏)를 올려 강화조약을 반대하다 흑산도로 유배된다.¹⁴⁾ 1884년에 개화파의 김 옥균과 박 영효등은 개화사상(開化思想)을 전개하면서 갑신정변을 시도한다.¹⁵⁾ 이러한 개혁이 실패된 지 10년 후 전 봉준의 영도하에 조 병학 탐학에 항거하는 민중의 봉기가 일어난다. 이 항거를 배태한 사상은 동학사상이다. 민중봉기 직후 의미있는 공동체적 대안으로 집강소(執綱所)가 제시되는데, 이는 민과 정치행정체제를 연결시키는 일종의 조정기구이다. 폐정개혁(弊政改革)과 민간서정(民間庶政)의 처리, 혹은 관민상화(官民相和)를 위하여 설치된 일종의 민정기관(民政機關)이며 독자적인 조직구성을 갖고 있는 집강을 주관하는 직무 책임자가 있었고 주로 지방행정체제의 문란상태를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이 주요업무였다. 1894년 농민전쟁이 전체사회와 민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는 경지로 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농민군 내부에서 철저한 평등의 원칙과 이에 근거하여 마을단위의 민주적인 관민조정기구인 집강소의

12) 鄭爽鍾, "洪景來의 亂" 傳統時代의 民衆運動下, 서울: 풀빛사(1981), pp.289-355.

崔珍玉, "1960年代의 民亂에 關한 研究" 傳統時代의 民衆運動下, 서울: 풀빛사(1981) pp.356-482

朴廣成, "高宗朝의 民亂 研究, 傳統時代의 民衆運動下" 서울: 풀빛사(1981), pp.432-482.

"한국사회연구의 사상과 방법 I : 조선후기의 사회변동(토론)" 한국사회연구2, 서울: 한길사(1984) pp.435-474.

14) 姜在彥,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 근대한국사상연구, 서울: 한울총서(1983), pp.53-85.

15) 姜在彥, "개회사상, 개화파, 갑신정변", 한국근대사연구, 서울: 한밭출판사(1983), pp61-132.

창설과 활성화에 있었다.¹⁶⁾

1896년에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등이 독립협회를 결성하여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라는 민중조직을 결성한다. 그들은 하원의 설치, 공화제 정부의 수립 등을 지향하는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는다. 그들이 그러한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힘은 민주주의적인 조직의 원리에 입각하여 만민공동회를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변혁의 역량을 결집시켰다는데 있다.¹⁷⁾

이상과 같이 한 말의 시기에 보여준 공동체적 대안은 겨레의 업적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한 말의 정부가 이러한 대안을 받아들여 정치행정체계의 개혁과 정신을 했어야 했다.

3. 작은나라의 공동체적 대안의 의미

역사 속에서 생성되어온 우리의 공동체적 대안은 실패했으나 의미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안에서 터득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의 의미는 밖에서의 성공한 경험들에 비추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안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선명하게 해준다.

여기서의 논의는 공동체적 대안들을 성공적으로 수용한 나라의 비결 정도를 성찰해 보고 우리의 공동체적 대안의 실천에 유의해 불러는 착상에서이다. 스위스의 게마인데(Gemeinde)와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가 논의의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그 이유는 시공간적 차이가 있거나 작은 나라로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공동체적 대안의 훌륭한 모델을 세계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스위스의 향리자치제

스위스는 평균인구 2천명 정도의 3천여개의 게마인데와 평균인구 25만 정도의 26개의 주권적 자치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는 이들 자치제를 싸고 있는 보자기에 지나지 않는다. 세 차원의 정부 중에서 가장 권한이 강한 것이 향리자치제 게마인데, 다음이 자치주 칸톤, 그리고 다음이 연방이라는 국가이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를 키워온 원동력은 게마인데라는 정치조직인데, 이의 원형은 광장민중의회라는 란쓰게마인데(Landsgeimeinde)이다. 원래 이 제도는 스위스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고대의 게르만 민족의 전통적인 공동체유지방식으로¹⁸⁾ 주민들이 마을의 목장을 공동으로 관

16) 瀬古邦子, "甲午農民期の 執綱所에 대하여", 近代朝鮮의 民衆運動, 서울: 풀빛사, (1982), pp.107-129. 집강은 기강을 지킨다는 뜻이며, 집강소의 출현은 전주화약이후이고, 전라도에 많 53개가 있었다.

17) 慎鎬厦, "獨立協會의 創立과 組織" 變革時代의 韓國史, 서울: 동명사 (1980) pp.104-143.

신교수는 독립협회가 고급관료클럽으로 민중의 사회단체로 전화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① 민중의 성장 ② 회원가입의 개방 ③ 목적의 명백성 ④ 민주적운영 ⑤ 투표에 의한 임원선출 ⑥ 회원의 안전 상징권 및 대의원 선출권을 들었다.

18) 大塚久雄 (李榮薰역) 共同體의 基礎理論, 서울: 돌베개사 (1982), pp.87-114. 大塚久雄 교수는 공동체의 기본형태는 아시아적형태와 고전고대적형태와 게르만적 형태가 있다 한다

리하기 위해 이른 봄 마을 광장에 모여 상의한데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구성원들은 자기네 고장의 법률과 재산, 이웃 마을과의 경계선, 이웃 마을과의 분쟁과 화해 등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란쓰게마인데는 각지에 흩어져 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번 모여 상의하고 약속하고 결정하고 노는 삶의 터전으로써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축제적 성격을 고루 지닌 공동체였다.

① 직접참여민주주의의 나무는 자기 고장의 문제를 마을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처리하자는 사고방식의 실현에서 성장한 것이다. 이는 모든 촌락이 각각 자기 고을을 자족적 경제·정치·문화의 단위 속에서 살아오면서 창조해낸 제도이다. 언어에서 이러한 특징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스위스·독일어 안에 200여개의 사투리가 존재하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까지의 국어교과서가 그 마을의 사투리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이처럼 마을이 개인을 발전시키는 도장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사회의 발전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삶의 보금자리는 가정이며, 개인의 발전도 가정을 통해서 전개되고, 이러한 힘이 모여서 국가발전이 성취된다. 즉 게마인데와 가정이 목적적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면 국가는 가정과 마을의 성장을 돕는 수단적 존재라는 것이다.

② 게마인데는 하나의 공화국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자치적 주권을 민주적으로 실천한다.

첫째, 입법, 사법, 행정 등에 종사하는 관리와 집행원 등의 공동체 임원의 선출은 그 공동체 주민에게만 피선거권이 있으며 판사, 검사, 의회원, 교장, 교회책임자, 도서관장 등을 포함한다.

둘째, 경제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교육에 드는 비용 등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시민권자의 심사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게마인데에서 결정하고 주와 연방은 게마인데의 요청서류를 요식적으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관장하는데 공동체 주민이 직접적 참여를 통해 처리하고 회의의 결의는 거의 만장일치의 전통을 살려서 공포한다.

요컨대, 란쓰게마인데는 유권자 전부가 모이는 군중집회이며, 유권자 전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민중의회이고 유권자 전부가 향토의 전승계승을 다짐하는 민중축전이다.

이 제도의 원리는 정치적으로 국민이 직접참여제도를 성숙케하여 지방자치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고, 교육이나 문화적으로 독자적이고 지역에 맞는 교육체계와 문화의 다양성을 키워왔다.

③ 게마인데는 향토기본재산의 공유를 근본으로 한 향토자치조직이다.

산은 대부분 공동소유이므로 개인 명의로 갖기가 힘들고 산의 나무를 벨 수도 없고, 임의로 개간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을사람 중의 한사람이 집을 짓게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나무를 베고 운반해 주는 관습이 아직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공동소유, 공동관리, 공

동작업의 공동체적 정신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동체정신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적소유와 공적소유간의 긴장이 고조되는데, 게마인데는 사적소유의 성장과 공동소유의 보존을 연결하는데 모범을 보이고 있다. 1874년부터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됐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생존권의 보장,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제동 등의 역할을 하고 국가사회적 차원에서는 위난시의 국가의 보호, 대량 실업자의 구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인과 전체의 평화적 공존을 이룩하고 있다. 1918년 스위스 근로자 1/3이 참가한 총파업 이후 1937년이래 현재까지 파업이 없었던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체로 중소기업이 산업의 기반이고 생산활동이 각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자와 근로자가 동일시되므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안 생기고 도시인구집중현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은 자기나름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한다.

개인소유와 공동소유의 형평, 자본가와 노동자의 형평,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형평, 지방행정과 중앙행정간의 형평의 추구는 각 가정과 각 마을이 중심이 되어 사유와 공유의 이상적인 조화를 모색하는 데에 있다. 물론 이러한 형평의 원리가 완벽한 것만은 아닌데 여성에 있어서 인색한 보수성이 그것이다. 여성의 참정권은 1971년에야 연방차원의 법률로 확정되었고, 남녀동일의 임금원칙은 남성보다 여성이 30%~40% 정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1973년 통계),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녀평등이라는 원칙의 실현은 게마인데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④ 게마인데의 임원들은 대개가 명예직이다. 즉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전문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일로 봉급을 받지 않는다. 작은 마을이기에 하는 일이 적다는데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주었다는 보람과 인격적, 능력적 성숙이라는 댓가를 받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장관이나 거의 모든 고급관리가 거의 게마인데의 관리로부터 출발하고 게마인데에서의 활동의 평가를 받아서 등용된다. 게마인데가 부담하는 세수의 비율은 전체 사회의 25%을 부담하고 있는 데 (연방 45%, 칸톤 30%), 이는 게마인데가 전체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

문화교육 부분에서도 전체 사회와의 건강한 연결이 보인다. 스위스 문화는 좋게 얘기해서 복합문화, 나쁘게 표현해서 주변문화라 한다. 전자는 여러 민족의 문화가 공존하는 데서 후자는 고유성이 약하다는 데 기인한다. 그들은 게마인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풍요한 문화를 조화롭게 공존시킴으로써 획일문화를 극복하는 다양성의 위대함을 창출한다.

교육에서도 게마인데와 칸톤이 독자적인 교육체제를 오랜 시일에 걸쳐 훌륭하게 발전시켰는데, 이는 "조국은 국민개개인(민중)의 전면적 자성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페스탈로치의 교육관이 게마인데를 거쳐 구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⑤ 이러한 게마인데의 통합적 중심점은 역사의 교훈과 종교적 이념의 산물일 것이다. 스위

스의 받침대로서의 게마인데는 지방책, 지방정부, 지방문화에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알프스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에서 우러난다. 아름다운 알프스를 바라보며 알프스의 피리로 끝까지마다 화음을 교환하는 생활속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체감이 생기고, 여기에서 인간의 마음의 고향으로서의 자연, 그것이 맺어주는 유대 조상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향토 등을 사랑하는 마음, 이같은 동양의 자연관과 세계관이 게마인데의 사람들의 삶의 깊은 뿌리가 된다. 스위스의 지혜는 싸움으로 지낸 역사의 경험(1291~1815년간 29회의 전쟁)이나 용병 수출, 신구교간의 종교적 분쟁, 분리주 전쟁의 쓰라린 과거의 경험에서 사상과 종교를 떠나 국민으로서의 공동체적 일체감을 갖는 평화로운 다종교,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의 공존모델을 창출한다. 이러한 모델의 실천의 비결은 스위스인의 깨끗한 마음과 부지런한 손에 있다고 볼 수 있다.¹⁹⁾

2) 이스라엘의 키브츠

1900년에 최초로 창설하여 220개 이상으로 번창한 키브츠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살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생산하고 죽는 소우주적인 사회이다. 이 조직은 자발적이고 대면적인 인간적 이해와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토대를 쌓고 전체 사회구조와 연결에 성공하고 있다.

① 키브츠는 자발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집단이 개인에게 머무르도록 하는 압력을 얼마나 가하는가에 상관 없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에 근거한 자발적인 공동체이다. 스스로 선택하여 가입하고 스스로 참여하여 생활과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상호비판과 반성의 과정 속에서 가치를 창출한다.

② 키브츠는 개인적 차원에서 믿음과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적 차원에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전체 사회에 창조적인 가치체계를 공급한다. 이러한 기능 수행의 메카니즘은 첫째, 사회의 여타 조직과 물리적 경계를 갖는 데, 이는 나름대로의 문화적 독특성과 일체감을 갖는 기본적 토대를 말하며, 둘째, 키브츠는 춤과 의식에의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 셋째, 참여와 상호비판과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책임있는 시민으로 키울뿐더러 공동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창조한다.²⁰⁾

③ 키브츠는 재산의 공동소유에 근거하는 데 토지나 농장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키브츠의 공유농장의 생산성은 여타 조직의 농촌사업들보다 훨씬 높다. 키브츠공동운영공장도 다른 조직

19) 金丁煥, 스위스-꿈의 나라, 실속의 나라, 서울:정우사(1983), pp.72-108.

李漢彬, 작은 나라가 사는 길-스위스의 경우, 서울:동아출판사(1965).

L. 슈트기(김진균역) 스위스인의 지혜, 서울:중앙신서(1978).

George Thurer, The Swiss Communes - Citizenship and Self Government, - Zurich, Pro-Helvetia (1970), 게마인데의 부분은 뒷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20) Margaret Mead, "Towards More Vivid Utopias," Science, 126(No. V), (1957), pp.957-961.

이 운영하는 공장보다 생산성과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다. 키브츠는 거둬들이 이익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조직에 배분하며 그래도 남는 것은 전체 사회로 환원한다. 공동 소유에 근거한 상호협력을 실현한 키브츠는 개인상호간의 대등한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키브츠간의 공동연구와 공동교육의 체계확립에도 기여한다.

④ 키브츠운동의 힘은 이스라엘 사회전반과의 연결에 성공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 마틴 부버는 이 점을 들어 키브츠를 '실패를 겪지 않는 실험'이라고 불렀다. 2백개 이상의 키브츠들이 그 이념상의 신조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키브츠연맹>으로 뭉쳤다는 사실은 조직면에서 이 운동에 힘을 부여했고 하나의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그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인구의 4%밖에 안되는 데 이스라엘의회(Knesset)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각료배출 3위(노동조합 등과 비교해서)를 기록한 것은 키브츠운동이 전체사회와 정치적·사회적으로 연결에 성공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체농지의 32%를 개간했고 총국민생산의 7%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키브츠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사회개혁을 일으키고 사회 전반을 위해 가치있는 변화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공동체였다고 얘기할 수 있다.²¹⁾

이러한 키브츠를 창조했고 통합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을 시오니즘(Zionism)-유대인의 영토적 문화적 통합을 성취하기 위한 유대인 국가 창설에 대한 믿음에 있다. 이렇게 키브츠들은 서로 함께 공유하는 가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스스로를 큰 운동의 일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연합할 수도 있었고 전체사회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는 대안이 되었다.²²⁾

4. 공동체적 대안의 구조모색

앞에서 논의한 공동체적 대안의 성찰-안에서는 실패했지만 의미있는 경험과 밖에서는 성공했을뿐만 아니라 평화적 공존의 모델을 제시한 경험-은 지금 여기에서의 공동체적 대안을 발전시키는 과제를 시사한다.

공동체적 대안의 과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한 데, 하나의 차원은 공동체적 대안이 포용해 나가야 할 가치가 무엇이겠는가를 고려하는 목표의 차원이며, 다른 하나의 차원은 공동체적 대안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룩되어야 하는가를 고려하는 방법의 차원이다. 이러한 착안의 전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공동체적 대안의 하나의 전제는 정치·행정체제와 민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유지·조정되는 연결기능을 추구하기 위하여 권력의 남용을 저지를 수 있는 정치·행정체제와 난동을 행사할

21) Daniel Katz, "Integration, Effectiveness and Adaptation in Social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of Kibbutzim Communities" Administration & Society, Volume 6(No. V), (1974), No. 3, pp. 283-315.

22) George Kateb, Utopia and its Enemies, New York: Free Press, (1963), p.124.

수 있는 민 사이에 (1)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2) 목표의 형성 (3) 공동체적 조직과 대안의 형성, 그리고 (4) 전체사회와의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치·행정체제와 민 사이에 있는 이 네 개의 존재는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 → 목표형성 → 공동체적 조직과 대안의 형성 → 전체사회와 연결로 진행된다. 우리의 경우 두레는 홍익사상, 집강소나 만민공동체는 위정척사·개화·동학사상이란 전체사회의 목표가 형성된 후에 나타난 대안이었다. 스위스의 게마인데를 제대로 승화시킨 힘은 신·구의 기독교사상의 공존이란 목표설정 위에서 가능했고, 이스라엘의 키브츠는 시오니즘사상이란 목표형성 후에 나타난 대안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의 극복을 위해 고민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지혜를 모아 형성해 낸 사상들이다. 전체사회와의 연결은 공통체적 대안이 현실적인 적합성을 가지면서 민중적 차원의 사회변화-사회 밑바닥으로부터 올라가는 상향식 변화, 스스로를 조직하는 민중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정치·행정체제 수준의 합리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두레는 마을 단위와의 연결에 성공했고, 문화적 의의도(농악의 개발) 대단했지만 정치·행정수준에서의 사회적 연결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된다. 집강소나 독립협회는 민중적 차원의 사회변화를 추구하고 어느정도 성공했지만 일본의 무력에 눌려 무너지는 경험을 가졌다. 스위스의 게마인데는 정치·행정,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이상적인 연결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스라엘의 키브츠도 이스라엘 사회전반에서 고립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수준에서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일으키고 사회전반을 위해 가지는 변화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능력을 지닌 공동체로 평가된다.

또 다른 하나의 전제는, 공동체적 대안은 공동체정신의 재건이란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데, 공동목표 중 의미있는 가치는 (1)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문제를 인식할 것, (2) 평등한 관계를 모색하는 형평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 (3) 상호의 자유가 존중되는 바탕 위에서 운영과 해결방식을 가질 것 (4) 사람이 사람을 목적시 하는 인본주의 정신을 키워 나갈 것 등이다. 공동체적 대안은 정치·행정체제가 국민의 관심사와 욕구를 잘 수렴하여 정당하면서도 지지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대안은 전체사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인본주의 원칙을 포용하게 된다. 첫째, 직접참여의 논리는 개인으로 하여금 득과 실이라는 점에서 고려해 볼 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소극적인 측면과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에게 보람과 공동체에 의미를 안겨 주는 적극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고도의 시민정신은 자발적인 참여가 자신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역할을 해줄뿐더러 이 참여의 힘이 공동체적 대안의 민주적인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근원이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정치·행정체제의 정당한 권력행사를 제공하는 근본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두레나 집강소 그리고 만민공동체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자발적 참여의 구조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고, 게마인데도 키브츠

도 성공한 가장 근원적인 힘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의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둘째, 불평등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의 형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유와 사유의 조화를 통해 평등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야 공동체의 자족성과 질서가 잡힌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공정하고 평등한 인간관계 위에서 공동체조직이 튼튼해질뿐더러 공유하는 가치체계가 확립되고 연대의식과 유대감이 성장하여 공동체의 힘이 살아나고, 구성원끼리 불평등한 관계를 가질 때 공동체조직은 와해된다. 두레, 집강소 그리고 만민공동체는 이 점에서 의미있는 노력을 했으며, 게마인테와 키브츠도 이러한 형평의 원리를 구현했기에 사회운동이 될 수 있었다.

셋째,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키워나가야 한다. 역사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행정체제를 많이 볼 수 있는 데, 자유의 역사 전통을 키우지 않은 채 평등사회로 전환한 공산주의 경우가 그렇다. 상호비판의 제도화는 공동체가 설정한 기준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고, 목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데 기여한다. 상호비판의 중요한 목적은 구성원들에게 공공정신 곧 공동체정신을 불어 넣고 독선과 이기주의에 맞서 싸우도록 하여 책임있고 자율적인 시민으로 키우는 데 있다. 두레, 집강소, 만민공동체는 나름대로의 민주적인 운영을 관철했다고 평가되나 개인의 가치보다 집단의 가치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했으므로 개인의 자유신장에 한계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게마인테는 개인의 자유신장에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이스라엘의 키브츠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신장에 기여하는 반면 억압적인 경우도 있었다.

네째, 공동체적 대안은 사람을 목적시 하는 인본주의를 키워나가야 한다. 참여와 형평과 자유의 가치의 신장은 공동체를 통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사람이 사람다움을 키워주는 인본주의를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재천명할 진정성에 이르는 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²³⁾ 때론 공동체가 통치자의 지배방식으로 조장·악용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때로는 공동체적 전통이 수단화될 뿐더러 날조화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오염에서 공동체 개념을 세척시키는 길은 인간주의 추구에 있다.²⁴⁾ 두레는 흥익인간에 대한 민중적 대답이었고, 집강소는 인내천 사상이란 인본주의의 표현이었으며 만민공동체는 만민평등의 민주주의를 추구한 인본주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업적을 보여 주었다. 게마인테와 키브츠도 인본주의의 구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이었다.

네 개의 과정과 네 개의 목표를 구성하면 16개의 공동체적 대안의 과제가 표 1에서와 같이 설정된다.

표 1에서 공동체적 대안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 부당하게 낮은 자의 편

23) Paul Goodman, Utopian Essays and Practical Proposal, New York: Vintage Book(1964), p.22.

24) Erich Fromm, The Sane Socie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1965), p.320.

표 1. 공동체적 대안의 과제

목표의 차원 과정의 차원	참여의 문제 (자발적 참여)	형평의 문제 (불평등의 시정)	자유의 문제 (평화적해결방법)	인본주의 문제 (인간을 목적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	1	2	3	4
목표의 형성	5	6	7	8
공동체 조직과 대안의 형성	9	10	11	12
전체사회와의 연결	13	14	15	16

에 서서 (2)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풀어 나가고 (3) 그 결과 물질적 이득도 얻지만 인격적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4). 공동체조직과 대안의 형성은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표에 의해 탄생해서 (9) 공동체 내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10) 조직내의 민주적인 운영을 관철하고 (11) 그 결과 생산성의 제고로 이득도 얻고 (12) 공동체 조직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뿐더러 위신을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란 공동체조직은 전체사회의 참여의 구조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13) 사회전체의 불평등의 시정을 추구하고 (14) 사회전체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해결방식을 제공하여 민중들에게 비판과 반대의 길을 열어 주고 (15) 민중을 수단시하는 것을 방어하여 민중을 목적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 (16)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정치·행정체제와 민중의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해 보자는 공동체적 대안의 과제는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의 문제가 남는다. 우리의 두레, 집강소, 민공동체는 공동체적 조직과 대안을 형성하여 (9,10,11,12) 전체사회와의 연결을 나름대로 실천하다가 실패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 속에서 현재의 대안이 잉태된다. 공동체대안에 대한 겨레의 꿈은 간직되어야 하고, 몇차례에 걸쳐 실패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처음으로 공동체적대안은 실천해야할 과제이며, 키브츠나 게마인데의 모델에 흡사한 공동체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의 시대에 기술과 관료화와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삶의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 즉 실패한 과거의 이상에 기대어 현대적 갈등을 포용하면서 민주적 이상을 키울수있는 공동체적 대안의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25) "共同體의 歷史, 經濟學的 展望과 文化運動의 視覺 (권두라담)", "共同體文化 제1집, 서울:공동체사(1983), pp.9-42.

Ⅲ. 맺는 말

이 글은 어디까지나 공동체대안에 대한 탐색적 고찰이다. 우리 겨레의 공동체적 대안의 뿌리와 의미를 되새겨 보고, 밖의 공동체적 대안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 겨레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공동체대안의 구조를 모색하는 기초작업이 이 글의 내용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명백한 개념화라든가 지방자치와의 관련이라든가 1900년대 이후 현대까지의 경험을 분석하는 작업이라든가 외국의 공동체운동과의 체계적인 비교등등의 연구과제가 숙제로 남게 된다.

Summary

A Study on Alternative on the Basis of Community as a Linkage Pole between Politico-administrative System and People

Koh Chang-hun

This article explores possibility to reconstruct alternative model on the basis of sense of community in our historical context. This simple insight has paved the way for a real alternative to recover sense of community in Korea today.

First, I will begin by briefly reviewing meaningful heritage of community that had formed through our history. Honik Ingan (弘益人間) is our root of sense of community. But the way of this humanistic political philosophy, we had institutionalized Hwabaik (和白) of Sila dynasty, Kugsangseongeo (國相選舉) of Baigje and Chegapeongyi (諸加評議) of Koguroe (a kind of leaders' meeting) in order to choose king through participation of upperclass leaders. And we had obtained experience of synthesizing In (仁) and Mun (文) from continuous policy from Sejong (世宗) to Seongjong (成宗) through Yi-danasty. Chungyakyong as a outside scholar developed and crystalized Silhak Sasang (實學思想). He proposed alternative model to provide peaceful linkage ground between governing elite and people. We obtained outstanding heritage of alternative on the basis of community from Dure (두레) Community, Chipganso (집강소) and Manmin (만민) Community through past century.

Second, I will try to compare Dure community with Gemeinde Community of Swiss and Kibbutzium community at main points of principle of community.

In my opinion, there are two dimension in order to accomplish alternative model of community. One dimension is goal as value, another is process as procedure. On the basis of two assumption, I posit the structure of task in order to manage successfully alternative on the basis of community that composes of four goals (1. direct participation, 2. social equity, 3. liberty, 4. humanism) and four processes (1. people with right consciousness, 2. formation of goals, 3. formation of organization and alternative of community, 4. linkage with total society). We will obtain sixteen tasks from this matrix of alternative structure in order to reconstruct sense of community. Without a strong sense of community, gap between politico-administrative system and people will be deeper and wider.

Much work needs to be done within a practical perspective on alternative model of community to clarify its concepts, framework as well as to assess its capacity to apply to real world in various parts of our society.